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2021년 월 30만원

정부, 법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내년 대상자 95% 25만원 지급  
국민연금 연계 폐지 방안 검토  
1년 4조 필요...재원 마련 협의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최고 월 20만 6050원에서 내년엔 월 25만원,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은 대변인은 15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 연금을 일부 간택받는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를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하위 70% 계층으로 하되 내년부터 수급액을 월 25만원,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대변인은 또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

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년에 약 4조원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가 465만명인데 이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명으로 5% 정도”라며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정기획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올해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의 해다. 인구변동이나 여러 요인 감안해서 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하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도 이 재계산위원회가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정하는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진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9월 전격적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이유였다.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이 월 25만원을 받지 않는다. 박 대변인은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돼서 (수급액이) 조정되는 대상은 전체의 5%인 약 23만명 정도다. 이를 제외한 수급자의 대부분은 월 25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박지정기자 jkpark@

## 이달까지 비 안 오면 모내기 2000ha 못해 일부 물 마름·시듦 현상...전남도, 저수지 61개 만들기로

이달 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전남 2000ha 이상 농경지에서 벼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미 모내기 가 끝난 논도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농도 전남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전남 계획 면적 15만9000ha 가운데 90.6%인 14만3989ha에서 모내기가 끝났다.

1만5000여ha에 대해 물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이모작의 경우 시기를 늦춰 최대한 모내기 면적을 넓힐 계획이다. 모내기 적기는 오는 21일까지이지만 30일 또는 다음달 초까지 모내기할 수 있는 한계기로 보고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계획 면적의 1.4%인 2157ha에서는 모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내기하지 못한 곳에서는 사료 작물 등을 대체 재배해야 하며 염해를 본 간척지 등은 아예 휴경해야 할 수도 있다. 전남도는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한 국비

29억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미 모내기를 마친 논은 가뭄 피해 면적도 968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439ha), 무안(126ha) 등 566ha에서는 물 마름 현상이 나타났으며 무안(135ha), 강진(53ha) 등 231ha에서는 위조(시듦) 피해가 생겼다. 무안(68ha), 신안(58ha) 등 171ha 벼는 고사해버렸다.

전남도는 가뭄 피해 최소화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해 정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 도비 포함 총 35억원을 추가로 특별 지원할 방침이다.

가뭄이 지속돼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경우 항구적 용수 확보를 위한 퇴적토사 준설의 적기라고 판단, 중앙정부에 준설사업비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한 결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8억42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61개 저수지를 준설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포털 앱 이용시간 40% 뉴스 본다”

### 한국신문협회 발행인 세미나

우리나라 국민은 PC와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로 일주일에 272분 정도 뉴스를 보며, 포털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이용시간의 약 40%를 뉴스를 보는 데 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1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김여승(광주일보 사장)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신문협회 창립기념 발행인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난해 10월 16~23일 PC·모바일 포털 이용자 1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들의 온라인 뉴스 이용 로그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PC로 포털을 이용할 때 뉴스 이용 비중은 11.32%였으며, 모바일 웹 비중은 20.56%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색, 커뮤니티 등에 숨겨진 뉴스 이용량을 합산한다면 전체 하에 포털 앱 체류시간의 40~45%가 뉴스 이용 시간으로 나타났다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SNS에서도 전체 이용 시간 중 뉴스 관련 이용 시간이 카카오톡 38.0%, 페이스북 26.6%, 밴드 21.0%, 트위터 18.8%로 높게 나타났다.

안 교수는 지난해 뉴스 소비자의 포털 체류시간과 포털의 PC, 모바일 광고 매출액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뉴스 저자료를 전재료(네이버, 카카오 합산) 가치가 35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유럽의 신문 지원 정책은 종이 신문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보급을 늘리는 방향”이라며 “신문 정책은 민주주의의 진흥 정책으로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뉴스 이용 비중은 20.56%로 조사됐다.” /박지정기자 pboxer@

##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D-2’...5년 뒤 본격 해체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1호기(맨왼쪽).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58만7000kW급)는 오는 18일 24시(19일 00시) 영구정지된다. /연합뉴스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58만7000kW급)’의 가동이 오는 18일 24시(19일 0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된다.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이로써 가동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퇴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8일 24시를 기해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를 냉각한 뒤 2022년부터 본격적 해체작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

를 의결, 고리 1호기 영구 퇴출을 결정했다. 영구정지 직후 원자로 안에 들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전량 저장조로 옮겨져 보관된다.

부산시 기장군에 들어선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 18일 원자로에 불을 붙인 이후 1978년 4월 29일 본격적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당시 고리 1호기의 총 공사비는 3억달러로, 1970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4개 놓을 수 있는 규모였다. 막대한 사업비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무모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정부는 영국과 미국 등

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강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준공 예정일을 훌쩍 넘겨 완공된 고리 1호기는 안정적 전기 공급으로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됐다.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리 1호기가 생산한 전력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가 지난 40년 동안 생산한 전력은 15만 기가와트로, 부산시 전체의 한 해 전력 사용량의 34배에 이른다.

2007년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인 30년이 만료됐지만, 10년간 수명 연장이 결정돼 모두 40년 동안 전력을 생산하게 됐다. 연장 수명 만료를 1~2년 앞두고 일각

에서 수명 추가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안전성과 국가 에너지정책 등을 두루 검토한 원안위가 영구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고리 1호기의 불도 사그라들게 됐다.

향후 고리 1호기 해체는 ▲원자로 영구정지 ▲사용후연료 인출·냉각·안전관리(최소 5년 이상) 및 해체계획서 제출·승인 ▲방사성물질 제염·구조물 해체(2022~2028년) ▲부지 복원(2028~2030년) 등 4단계로 나뉘어 15년 이상 진행된다.

한수원은 오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이날 정부의 원전 정책 로드맵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 랜섬웨어 피해 업체 결국 해커와 13억 협상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국내 웹 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이나’가 결국 해커와 13억에 협상을 타결했다.

3200여개 사이트 피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불법과 협상하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인터넷나이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암호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해커와 397.6비트코인

(한화 13억원)을 건네기로 타협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상 가상화폐다.

복구 작업은 최소 1~3일, 전체 복구는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터넷나이나는 지난 10일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으면서 리눅스 서버 300여대 중 153대가 감염됐다. 이에 따라 서버와 연결된 웹사이트 3400여개도

중지됐다. /박지정기자 pboxe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신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택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암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흥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000만원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100만원

문의 010-9203-6161